

진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도전

- ▶ 핵심적인 플랫폼 기술로 분자진단 업계에서 글로벌 경쟁력 입증
- ▶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진단 콘텐츠 다각화로 미래 성장 모멘텀 확보

<2021-04-14> 신속 분자진단 플랫폼 기업 진시스템(대표이사 서유진)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진시스템의 총 공모주식수는 142만 5,000주로 제시한 희망 공모가 밴드는 1만 6,000원~2만원이다. 5월 6~7일 양일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13일과 14일 일반 청약에 받는다. 진시스템은 5~6월 중 상장 예정이며,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진시스템의 주요 사업은 장비, 키트, 시약을 아우르는 토탈 분자진단 플랫폼 솔루션이다. 주요 제품으로는 GENECHECKER(초고속 PCR 진단장비), 바이오칩 기반 진단키트가 있다.

진시스템은 3가지 핵심적인 플랫폼 기술을 통해 차별화된 현장 분자진단 솔루션을 개발, 적극적인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PCR 검사 대비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실현한 정밀 하드웨어 기술 ▲한 번의 검사로 업계 최다 타깃을 검출시킨 High Multiplex 기술 ▲검사의 편리성을 확보한 Biochip 기술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플랫폼을 구축하며 기존 진단법 대비 압도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했다.

회사는 진단 시스템에 적용될 콘텐츠를 다각화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실제로 최근 회사는 원천 기술이 집약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진단키트와 살모넬라균 검사키트의 상용화에 성공했다. 특히 살모넬라균(식중독균) 검사키트는 국내 최초로 美 AOAC 국제 인증을 받으며 진시스템의 글로벌한 역량을 입증시켰다. AOAC는 세계 식품 관련 제품들의 안전성 및 미생물 검사 시험법을 공인하는 기관이다.

향후 진시스템은 진단 장비를 설치한 후 모기매개감염병, 결핵, 증상 기반 감염병 진단 등 신규 콘텐츠들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인도 쉽게 사용가능한 차세대 자가 분자진단 검사 솔루션을 상용화할 계획이며, 자사 플랫폼 기술 기반의 OEM/ODM 사업도 병행함으로써 지속적인 성과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유진 진시스템 대표이사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분자진단 시설 및 분자진단 키트 연구개발에 투자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업계에서 입지를 다지며, 현장진단형 분자진단 플랫폼의 글로벌 리더로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참고자료>

[진시스템 IPO 일정(예정)]

증권신고서 제출	2021년 4월 13일(화)
수요예측	2021년 5월 6일(목) ~7일(금)
청약	2021년 5월 13일(목) ~14일(금)
코스닥 상장(예정)	2021년 5~6월 중

공모(예정)주식수	1,425,000주
주당공모가액	16,000원 ~ 20,000원
공모예정금액	228억 원 ~ 285억 원
상장(예정)주식수	6,811,080주
예상 시가총액	1,089억 원 ~ 1,362억 원

▣ 자료문의 : 진시스템 유호성 이사 (042-863-8551)

IR큐더스 한정선 이사 (02-6011-2000 #120) IR큐더스 안재희 선임 (02-6011-2000 #213)